

교회 목표

신명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충청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2008 충청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권 편집인: 노광원 편집: 양재웅

말씀은 나의 삶!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로마서 10:17)



신록이 우거진 5월입니다. 산과 들 그리고 어느 거리이나 활짝 피어 있는 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 8:1) 그런데 혹시 아름다운 만물로 가득한 이 계절에 주께 친도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탄성을 자아내면서도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치 좋은 산과 아름다운 꽃을 감상하려고 교회마저 멀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탄성을 자아내는 아름다운 경치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아름다움은 천국에 있습니다.(제 21:10~11) 따라서 우리는 아름다운 만물을 보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향은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요 3:5)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믿음입니다.(엡 2:8)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면서도 정작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롬 10:16)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예배와 집회에 빠짐없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일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수요일예배와 금요찬양집회 그리고 마가복음과 예레미야 강해 중인 새벽기도회에 나오십시오. 또한 일 년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충청성경통신 강좌'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십시오.(문/각 교구)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요 5:39)

말씀과 삶(금요찬양집회)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거듭난 참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마 6:33) 삶의 방향과 목적과 목표가 달라진다. 호흡이 있는 동안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다.(고후 5:1~2)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삶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르는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단 말인가?(눅 9:23~24) 이것은 과연 내 삶에 그리스도가 계신가?의 질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질문의 해답은 과거가 아닌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다.(갈 2:20)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셨다.(눅 9:25~26) 이 명령에 우리는 전적으로 자신의 뜻을 부인해야 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랑스러워하고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마 28:18~20)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감격에 매일 중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만나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한다. 심지어 선교를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전도와 선교마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11,000여 명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하지만 교회의 큰 행사로서 선교를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변질된 모습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 참으로 우리는 산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삶의 방식을 터득하고 자신의 실력으로 주님을 도와주려는 교만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다.

진실로 나의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여 보자. 특히 마태복음 10:34,36-39 말씀을 삶에서 실천 하려면 거의 불가능하다.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하여 노력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가 전혀 없고, 문제가 올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역사가 있는 곳에 항상 죽음이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마 11:28~30) 생명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자.

그리스도인의 삶이 종교적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종교인이 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별하지 못한 채 본주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또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의 종교를 세우고 그리스도께서 계시어 할 자리에 변질된 기독교를 대치시켜 놓은 채 나름대로 정성스런 삶을 살고 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 대신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만족과 쾌락을 느끼고 하고, 깊은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절망을 느끼며 얼마나 채찍질하고 있는지 모른다. 진리가 어질 때에 형식과 외식이 중요해진다. 또한 율법과 양심 그리고 전통과 문화가 중요해졌을 자기 자신이 중요해진다.(골 2:8; 갈 1:6~7)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중시하며 사는 자들은 기쁨이 없는 등불이거나 기쁨이 없는 자동차와 같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내어 주셨다.(롬 5:10) 죽은 자들을 살려서 참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다.(빌 4:8)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가? 나는 매일 주 예수로 인한 기쁨을 체험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무엇 때문에 죄와 싸우고 있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 데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행 4:26,29)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문화와 상관없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함이다.(요 3:16) 온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빛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빛을 찾는 자들은 삶이 변하게 된다.(요 1:3~4)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꼭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빌 1:6) 아멘.

THE SALVATION OF SERGIUS PAULUS

⁽⁶⁾When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as far as Paphos, they found a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whose name was Bar-Jesus, ⁽⁷⁾who was with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a man of intelligence.

This man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¹¹⁾“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not see the sun for a time.” And immediately a mist and a darkness fell up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those who would lead him by the hand.

⁽¹²⁾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happened, being amaz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Acts 13:6-12)

The Bible tells us that the followers of Christ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in the church at Antioch(Acts 11:26), and that they listened to the Holy Spirit's calling and sent Barnabas and Saul out on its first missionary journey.(Acts 13:2) This wonderful church was a praying church(Acts 13:3), which enabled the Holy Spirit to work His wonders. Led by the Holy Spirit, Barnabas, Saul, and their helper John Mark traveled from Antioch to the sea town of Seleucia, where they set sail to the island of Cyprus.(Acts 13:4) This island had two major cities located on opposite sides called Salamis and Paphos. As soon as Barnabas, Saul, and John Mark landed in Salamis, they began to "proclaim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Acts 13:5) After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ending up in Paphos, they met two important people named Bar-Jesus (translated son of Jesus) and Sergius Paulus. The first was a religious leader and the latter a political leader. The Bible tells us that Bar-Jesus was a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and that Sergius Paulus was a "proconsul" and a man of "intelligence"(vv. 6-7) Both men heard the word of God, but only one came to salvation.

Sergius Paulus desired God's word, "This man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v. 7) He was a senator, an important man in Cyprus, a Roman senatorial province. The Bible refers to him as a prudent and sensible man. He knew he needed God. He was aware of the limitations of human power. His heart longed to hear the word of the Lord. Romans 10:13-14 say, "for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How will they believe in Him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will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This is why God miraculously sent Barnabas, Saul, and John Mark to Cyprus. My dear friend, do you really desire to hear what God has to say to you?

Sergius Paulus was distracted. The religious leader of his town, Bar-Jesus, the man who called himself the son of Jesus and whose name is translated into Greek as Elymas, went against Barnabas and Saul, "But Elymas the magician (for so his name is translated) was opposing them, seeking to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v. 8) Whenever someone gets serious about Jesus, someone else always comes along to try and dissuade them. It seems like every church has at least one of these kind of people in their midst. What is strange here is that this false prophet was a Jewish sorcerer. Jewish people follow the Law, and the Law specifically says, "Now a man or a woman who is a medium or a spiritist shall surely be put to death. They shall be stoned with stones, their bloodguiltiness is upon them."(Lev. 20:27) The Jewish congregation in Cyprus should have stoned Elymas, but they didn't because they were not practicing their religion. Like many of today's churches, their spiritual awareness was

decaying. My dear friend, are you being distracted by someone trying to turn you away?

Sergius Paulus met true servants of God. Saul, "who was also known as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ixed his gaze on him.(v. 9) Saul was his Jewish name and Paul his Roman or Gentile name. Both were given him at the time of his birth, but he now begins to use his Gentile name in this Gentile environment. He told Elymas, "You who are full of all deceit and fraud, you son of the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will you not cease to make crooked the straight ways of the Lord? 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not see the sun for a time."(vv. 10-11) Paul boldly rebuked this man, and this man was stricken with blindness, "And immediately a mist and a darkness fell up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those who would lead him by the hand."(v. 11) Jesus said,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Mt. 7:15) John also reminds us, "Who is the liar but the one who denies that Jesus is the Christ? This is the antichrist, the one who denies the Father and the Son."(1Jn. 2:22) If spiritual leaders are not proclaiming Jesus, but instead emphasizing other things like good music and good speakers, then they are false prophets, liars, and sons of the devil. Servants of God must boldly denounce false teachings. My dear friend, do you know any true missionaries?

Sergius Paulus made a decision, "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happened, being amaz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v. 12) He saw that false teachings lead to blindness. He turned from false doctrines to faith in Jesus Christ. This proconsul was astonished at what Saul said about Jesus. The gospel was truly good news to him. Jesus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captured his heart, and Jesus rejoiced over him. Jesus said that a shepherd who brings in a lost stray rejoices over him/her more than over the ones which have not gone astray.(Mt. 18:13) Jesus also said, "I tell you, there is joy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of God over one sinner who repents."(Lk. 15:10) Barnabas, Saul, and John Mark listened to the Holy Spirit and went to Cyprus and found this one lost soul. The first missionaries from Antioch had a successful mission. They found two important men, one a Jewish false teacher whom they punished, and the other a Gentile politician whom they helped make into a Christian. Sergius Paulus' decision to believe in Jesus Christ brought him salvation. My dear friend, have you made a decision about Jesus?

In hearing this message, I am wondering how many of you are actually saved? Do you follow the gospel or run after earthly things? If you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your Savior then I know that the Holy Spirit is going to send you on His mission. I hope you bring the good news to save another Sergius Paulus. Amen. 

다움 주일 설교

서기오 바울의 구원

⑥은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⑦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④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⑤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행전 13:6~12)



김성관 목사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이 안디옥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행 11:26)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첫 번째 선교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습니다.(행 13:2) 이 놀라운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고(행 13:3), 그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는 복음전파의 사역들을 이루어가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의 동역자 마가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안디옥을 떠나 항만도시 실루기아로 내려가 구브로 섬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행 13:4) 이 섬에는 서로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두 개의 큰 도시, 살라미와 바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 사울, 마가요한은 살라미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행 13:5) 온 섬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고, 마지막으로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바에수(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와 서기오 바울이라는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에수는 종교지도자였고 서기오 바울은 정치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은 바에수를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로, 서기오 바울은 “총독”이며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6~7절) 두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습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다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7절) 그는 원로원의 의원으로 로마의 식민지였던 구브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신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자신에게도 하나님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깨달았던 것일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복으로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마서 10:13~14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로 전파하는 자가 있을 어찌 들리리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바나바와 사울, 마가요한을 구복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십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서기오 바울은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스스로 예수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며, 헬라어로 엘루마라고도 하는 그 도시의 종교지도자 바에수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라”(8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알고자 할 때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열어서 믿지 못하게 방해할 합니까?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이런 사례가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가 유대인 마술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에는 특히 “남자나 여자가 점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레 20:27) 구브로의 유대인들은 당연히 엘루마를 돌로 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처럼 그들도 영적 시각력을 잃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려 놓고 결국은 돌아서게 하는 어떤 사

람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다

서기오 바울은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만났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엘루마를 주목하고 쳐다보았습니다.(9절)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었고, 사울은 로마나 이방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 나라에서 자신의 이방식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루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급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노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10~11절) 바울은 담대하게 그를 꾸짖었고 그는 앞을 못 보게 되었습니다.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11절)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독액질하는 이리라”(마 7:15) 사도 요한 역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나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요일 2:22) 만약 영적 지도자들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듣기 좋은 축복의 메시지만 강조한다면, 그들은 거짓 선지자요 거짓말쟁이여 마귀의 자식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종들은 담대하게 거짓 가르침들을 비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위에는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다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12절) 그는 거짓 가르침이 눈을 멀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거짓 가르침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총독은 예수님에 대한 사울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진실로 복음은 그에게 복된 소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예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길을 잃지 않은 양들보다 그를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8:13)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앞에 기뻐이 되느니라”(눅 15:10) 바나바와 사울, 마가요한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구브로에 갔으며 그곳에서 잃어버린 귀한 한 영혼을 발견했습니다. 안디옥교회에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들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유대인 거짓 선지자였던 사울은 결국 사도들에 의해 정벌을 받았고, 이방인 총독이었던 다른 한 사람은 사도들의 도움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실제로 구원을 받았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을 좇아 달라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선교지로 보내실 것입니다. 또 다른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5. 14.)

어머니의 믿음

(디모데후서 1:3~5)

성경은 은총으로 가득하다. 은총의 자녀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성경이 전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믿음과 구원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은총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과 구원 대신에 노력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행위를 통한 믿음과 구원을 성경에 혼합시켰으며 기독교를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의 순수한 믿음이 기독교의 변질을 막았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기독교의 코스를 바꾼 것이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은 다른 부족들과 마찬가지로 애굽의 노예였다. 그녀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었다. 어느 노예처럼 하루의 삶이 고단하였다. 비록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지만 애굽의 정책으로 이제 막 출산한 아기 모세를 죽여야 하는 악조건에 있었다. (민 26:59)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요게벳의 삶을 달랐다. 은총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모세는 바로의 딸로 의탁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 결국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요게벳의 믿음은 모세를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갔다. 사후의 어머니인 한나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후를 넘겼다. 사후를 향한 어머니 한나의 사랑은 형편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그러나 한나는 사후를 하나님께 드렸다. (삼상 1:11,20,22) 요게벳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나의 믿음은 적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 순수한 어머니의 믿음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

오늘 본문도 순수한 믿음을 가진 어머니를 기록하였다.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이다. (딤후 1:5) 그런데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를 둔 혼혈이었다. (행 16:1) 그럼에도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순수한 믿음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딤후 3:15)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감사하였고, 디모데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딤후 1:3~4)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모든 욕망을 내려놓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의미하지아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나를 온전히 부인하자! 그 빈 곳에 믿음을 채우자! 우리의 가장에 진실로 필요한 것은 마태복음 1:1의 믿음이다. 아브람의 믿음이다. (창 12:3)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의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거짓이 없는 순수한 어머니의 믿음은 기독교의 잘못된 방향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항하게 만든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이 가진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은총으로 거듭난 죄인이 된다. 비로소 믿음과

구원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어머니의 믿음은 그녀의 자녀에게 보인다. 로이스는 자신의 딸인 유니게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쳤다. 마찬가지로 유니게는 자신의 아들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믿음을 가르쳤다. 이처럼 어머니의 믿음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전해진다. 결국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되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딤후 1:6)라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디모데에게 전해진 것은 성경뿐이었다. 세상에서의 그 어떤 학문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디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딤후 3:14~15)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에게 보인다.

어머니의 믿음은 손자, 손녀에게 전해진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한다. (딤후 3:17) 이것은 성경만이 소유한 유일한 능력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딤후 3:16)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성경의 진리를 믿은 로이스의 믿음은 손자 디모데에게 전해졌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십자가 범사에 오매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딤후 4:2)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이다. 매순간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일깨워야 한다. 어머니의 믿음은 손자, 손녀에게 전해진다.

어머니들의 신앙은 다른 세대에도 전파된다. 디모데의 신앙은 어머니의 신앙이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디모데는 믿음과 구원을 전하는 복음전도자가 되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앞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딤후 1:13~14)는 바울의 말대로 디모데는 자신이 물려 받은 신앙을 다른 세대에도 전파하였다. 베뢰아, 고린도, 마케도나, 에베소 지역으로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디모데는 평생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하였다. 그다 전하는 것은 성경이었다. (딤후 6:3) 그는 예수님을 통한 믿음과 구원을 전하였다. (딤후 6:20) 어머니들의 신앙은 다른 세대에도 전파된다.

믿음의 어머니들이여!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때 우리의 가정은 살아난다. 거짓이 없는 어머니의 믿음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이 믿음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것은 명분 대항,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지식과 건강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십자가를 통한 사랑을 가르치라! 우리의 자녀들을 복음을 전하는 천국인원으로 키워야 한다. (딤후 4:3~5)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예수님이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이 되기를 간구하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 매주 월요일새벽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등불은 감추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4:21~25)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라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막 4:21~22) 등불은 감추어 두기 위한 것이 아니다. 등불은 주변을 밝히려는 것이다. (마 5:15) 무엇보다도 이 등불을 통하여 은총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진리의 등대가 되어 아무도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종도를 지키려는 신자들이 때문이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나뉜다. 빛과 어둠의 중간은 없다. 그런데 남부럽지 않게 세상에서 잘 살고 천국에 들어가려는 일파한 사람들이 어둠과 빛의 중간을 택한다.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은 죄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진실하게 참회하게 하신다. 그리고 악한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케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이 승리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막 10:26)

우리는 등불이다. 보혈의 기름을 통해서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등불이다. 보혈의 등불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아무도 눈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려 한다. 그런데 우리는 등불로서 존경을 받거나 다른 등불을 존경하려고 한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등불 자체가 존경을 받아야는 안 된다. 등불은 빛을 비추어야 한다. (요 5:35)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종교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한 마음이 되었다. (막 3:6) 그들의 귀는 자존심과 교만으로 막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막 4:11,26,30)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결국 그들의 삶은 영원한 어둠에 거하였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막 4:23) 오직 믿음으로 눈과 귀를 열 때 빛을 볼 수 있다. 주님의 등불이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 (행 13:47) 어둠에 속할 수 없는 빛의 아들들 된 것이다. (살전 5:5) 십자가를 통한 대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죄인들은 기이한 빛(벧전 2:9)에 들어갈 수 있는 택함받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자 되었다. 그럼에도 무엇을 주의하지는가? 세 사람의 등을 비추지 않는가? 왜 회개하지 않는가? 예수님은 등불의 사명을 저버린 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셨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해어리는 그 해어림으로 너희가 해어림을 받을 것이며 또 받으시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막 4:24~25) 세상에 가지런한 해어림(measure)으로 해어림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를 버리고 존경과 명예에 해어림을 둔다면 그 해어림으로 우리는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마 7:1~2) 그나마 남아있는 것조차도 빼앗길 것이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오히려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딤후 2:15) 영적으로 깨어나자. 뿌리 깊은 죄로 가득한 목은 심령을 보혈로 기증하자. (호 10:12)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 바로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른다. 자기를 부인하며 어떤 상을 쳐다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자. (빌 4:8)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자. "너의 등불을 켜두라. 거진 바다 비취라." (찬 510장) 아멘.

복음을 영접했던 아이들

날씨가 매우 더워 조금만 뛰어도 흐르는 땀, 조금만 운동을 하면 흘리는 다리와 손, 아이들을 향해 웃어주던 웃음조차도 오후 사색이 시작되자 점점 힘에 부쳐졌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찬양을 많이 하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빈민촌에 왔을 때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진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나를 보더니 나를 잘 안다는 듯이 와서 밝게 인사하고 웃어주던 소피아라는 아이가 기억납니다. 소피아는 내가 함께 기도하자고 하니 수줍은 듯 웃더니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했고 기도가 끝나자 함께 찬양하는 사람들 틈으로 저를 이끌고 갔습니다. 소피아는 운동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운동을 따라하며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현지어를 몰라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겨우 할 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우리는 말의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 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현재의 영혼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값지게 보낼 수 있었음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전한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아이들의 순수함과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그 가난한 마음에 내가 믿는 예수님을 얼마나 전하고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으리라 확신합니다. 현재의 영혼들을 보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기실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최순권(집사, 19교구 3지역팀)

또, 왔어요!

우리는 충현교회 전도대이다. 수요일에 후 교육관 4층에 올라가 말씀을 듣고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한 뒤에 전도지를 가지고 전철이나 거리에 나가 노방전도를 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바로 찢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않고 열심히 수요일마다 전도를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며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주님이시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

우리는 가까운 교회주변에서도 전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전도지역에는 가정 집이 많다. 그러나 집집마다 자동문으로 되어있어 들어가기도 못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지던 전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지역을 돌면서 기도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리고 성을 믿음으로 돌았듯이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돌아본다. 편지함에 꽃을 때에도 전도지를 얹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한다. 그렇게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한 건물의 사무실을 발견했다. 들어가 보니 젊은이들이 모여 부흥산을 하고 있는 곳이었다. 여러 사람이 문연하고 있었다. 전도지를 주며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충현교회가 가까워나 나오라고 했다. 그러자 자기 어머니는 불교신자이며 전도지도 받지 말라고 했다고 아예 전도지를 받지도 않으려고 했다. 그래도 나는 찾아가고 또 찾아가다. "또 왔어요."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읽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럴 때마다 "부담스럽다. 오지 말라! 사무에 방해가 된다."라는 말을 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마음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나 혼자서는 도저히 저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교구 권사님께 같이 이끌자고 부탁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셔서 적극적으로 돌아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드디어 그들 중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나오겠다고 했다.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한 사람은 어릴 때 주일학교에 가본 적이 있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오빠가 신학을 하고 자기는 시골에서 세례교인이었다고 한다. 권사님과 나는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다. 충현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사무실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던 그들이었기에 저들의 신앙이 자랄 때까지 돌보며 기도할 것이다. 본인들이 와서 자기 손으로 등록을 하는 것을 보며 또 그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셨을 것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도 하셨기에 비록 자그마한 그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기를 기도하며 주님께 온전히 감사드립니다.

전옥희(권사, 7교구)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9일(금)~5월 16일(금)	4교구 2지역	문영규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6지역	한웅택
5월 9일(금)~5월 17일(토)	7교구 3지역	장길남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1개 팀)

기 간	팀	팀 장
5월 19일(월)~5월 27일(화)	13교구 5지역	조호연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유치부



김성초(장로, 유치부장)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백요 너의 지극히 큰 삼자이니라" 2008년을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고 유치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라는 말씀을 항상 떠올리며 매주일 유치부 어린이들과 주님께 경배 드림에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주일 오전 11시 유치부예배가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유치부 찬양대석은 어린 대원들로 가득 차고 아이들의 예쁜 찬양소리로 유치부예배가 시작됩니다.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즐거움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자네~" 오직 예수님만을 따르며 사랑하는 유치부 어린이로 양육함이 교사들의 지혜와 지식과 계획함으로 이루어짐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만유의 주재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치부 선생님이 되기를 항상 간구하며 성령충만함이 임하는 유치부 어린이들

의 영혼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교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유치부 어린이들은 찬양과 말씀에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아멘!"하며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후 분반공부시간에는 연필별로 나누어진 꽃과 열매로 모이고 각반별로 6~8명의 어린이들이 담임선생님들과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며, 그날의 말씀, 그 중 한 성경요절이라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합니다. "유치부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과 예수님을 함께 좋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사로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예요."

유치부에서는 5월 25일 전도집회에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전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양육하기 위하여 한 명씩 복음 전할 친구를 정하고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알기 전에 우리 주님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유치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립하라 그는 머리로 곧 그리스도라"(엡 4:15)

아기들의 눈빛 속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5월의 주일 아침, 아직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남편과 가슴에 성경을 안은 아내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교회에 가는 모습일 것이라곤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정은 정말 아름답고 신성하며 포근한 곳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영아부는 우리 아가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곳이고 편안하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2개월이 채 안 돼서 교회에 첫 외출을 나눈 영아를로부터 세 살배기 아가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언니, 오빠, 누나, 형아들의 특송이나 연주도 감상하며 생일축하와 새 친구를 환영하는 시간, 아장아장 걸음마로 한글함을 들고 나오는 친구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부모님들의 성경이야기와 반별 찬송가부르기, 여름·겨울 성경학교, 재미있는 분반공부시간..... 이렇게 다양한 순서에 따라 우리 영아부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속에서 한 주 한 주 잘 자라나갑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 동안 호기심 많은 우리 영아부 친구들이 많이 조용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이 곳 영아부는 아기들의 순결한 눈빛과 부모님들의 소망, 선생님들의 따뜻한 사랑이 어우러져 예수님의 지혜를 마음껏 배우는 곳입니다. 아이들의 예배이지만 오히려 얼마, 아까가 더 은혜 받는 그런 곳입니다. 새 친구 환영시간에 우리 아기들이 많이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세상의 방식과 원칙을 배우기 앞서서 말씀으로 양육 받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까 소망합니다.

자녀가 셋이라서 넷이라서 영아부만 오셨든 안나나는 자매를 보면 참 복 있는 자매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예배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모체로부터 독립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리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부모 곁에서 머물게 하시는지 생각해보자. 부모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기 위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고 양육하고 훈계하여 진정한 주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주관과 세상의 흐름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영아부에서는 어릴 때부터 말씀이 우리 아기의 삶을 인도하고,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배하도록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아부 아기들의 맑고 순수한 눈빛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봅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이든 다 아름답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진(감리녀)의 엄마, 영아부)



와, 보세요!

어린 시절 유교사상이 뿌리 내렸던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일찍 별세하시고 할머니와 언니 둘 그리고 나, 이렇게 딸만 셋이 가정의 주력 나갔었다. 늘 외롭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던 시절, 주일날 교회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때 보았던 교회선생님은 유일한 내 사랑의 대상이었고 좋아했다. 나도 그런 선생님이 되어 나 같이 외롭고 쓸쓸한 아이들을 사랑해 주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다. 예쁜언니 이 꿈을 내 나이 오살을 훨씬 넘긴 지금에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 안에서 깨닫는 것이 바로 선생님이요 새로 태어나서 같았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믿음의 행함을 실천할 때 예수님은 역시 신실하셨고 나의 진리가 되셨다. 세계 선교의 꿈을 주시고 한국일꾼 양성의 꿈을 주신 것이다.

처음 교사가 되어 여섯 명의 학생들을 맡겨 주셨을 때 별난 학생이 한 명 있었다. 늘 불순종하며 언어는 거칠었다. 심방을 하며 환경도 살펴보고 기도했다. 학생들을 잘 파악해야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충현성경통신강좌'와 '충현의 만나'를 미리 보고 오도록 간절히 부탁했다. 그것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호수가 1장 8월의 "이 율법학을 내 입에서 마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네 내 깊이 형통케 한다."라는 말씀을 일 년간 기도하며 외웠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 결국 불쌍했던 그 남학생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사했다. 오전 9시, 어름들을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려면 힘이 들텐데..... 열세 살 어린 나이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는 그 학생들의 믿음이 감사했다.

오늘도 세상의 초등학교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진짜인데!"라는 생각이 나는 오늘도 "와,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외친다.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 날까지 이 복음을 외칠 것이다.

류용희(교사, 중동1부)

구역장이 더 은혜 받아요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어찌하여 저에게 구역장을 감당하라고 하시니까?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오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구역장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식구 모두가 권사님이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믿음도 나보다는 품oser서 매순간마다 격정과 열려가 있었다. 구역예배 시간에 나는 "저~ 권사님, 이 찬송가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말하면, "격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이니....."하시며 70세의 나이에도 아름다운 음성으로 찬송의 첫 음을 잡아주신다. 함께 찬양을 하고 또 다른 권사님이 기도를 하신다. 이처럼 예배의 시작부터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도로 힘을 주시니 나의 격정과 열려는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믿음을 나누게 된다.

구역교재를 나누며 나는 질문한다. "권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처럼 권사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나도 베드로처럼 말하고 열려 도망을 갔을 거야! 뭐, 세 번까지 물어 볼 때까지 있었어? 한 번에 걸려야 나 살려라고 물어 갔겠지." 권사님의 솔직한 대답에 나도 나도, "맞아 나도 그런 거야!" 우리 구역식구들은 너무나도 솔직하시다. "저도 권사님들과 같았을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베드로는 세 번까지도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이 부인하면서요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실수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았고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 새롭게 변화 받고 예수님이 지시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에게 더 큰 은혜가 돌아옴을 체험으로 느꼈던 것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도록 해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체험했던 것을 간증하기 시작한다.

구역식구 모두 은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옆에서는 "맞아. 아멘. 아멘."으로 화답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낙한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함이 생긴다.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며 자기부인을 하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우리 모두 통성기도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 구역식구들은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많지만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며 서로에게 은혜를 나눈다. 그래서 구역장인 내가 더 은혜를 받는 시간이 많다. 주님은 나에게 구역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그로 인해 주님께 한 말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 항상 예배를 마치는 시간이 되면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느끼며 주님께 감사드리다.

주은숙(통천구역장, 24교구)

예수님이 순간 생각났고.....

꿈 많고 활기 넘쳤던 여고 1학년, 학하고 예쁘장한 해자가 내 옆 짝꿍이어서 학창시절을 신나고 재미있게 보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해자를 볼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같이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에 아주, 가끔씩 복음을 전했다. '다행히도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미션스쿨이어서 찬양대까지 믿음을 복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해자는 불교신자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불교교과까지 다니며 교리를 배우고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까지 보는 순간 나는 너무나 속상했다. 한편으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만나지 말자.'라고 말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러나 주님은 나로 하여금 해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러던 중 해자와 연락이 되었다. 해자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무척 좋지 않았다. 사고 후유증으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아 몸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해자는 "꿈속에서 나는 예수님이 순간 생각났고, 예수님이라면 날 살려 줄거라는 확신이 생겨 달려달라!"고 부르짖었다고 했다. 참으로 놀랄만한 고백이었다. 나는 지체 없이 해자를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 현재 해자는 새가족양육부에서 복음을 배우며 신앙의 첫걸음을 떼고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없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찬양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믿는 해자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좋은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에 저절로 신이 난다.

"주님, 해자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오광순(집사, 11교구)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고등학교으로 1년을 지내었습니다. 그동안 학교, 가정과 교회에서 제가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다시 그 일들이 종결되어지는 것들이 그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같았고 아무도 그 일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에 저는 수긍하며 살았습니다. 더욱이 고등학교에서의 힘든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처음 고등학교 때 가졌던 큰 기대와 꿈들은 시간이 지남수록 멀어졌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위 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힘든지?"라고 말했습니다. 모태신앙인 저에게 "예수님이 날마다 동행하신다. 너와 함께하신다."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제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느낄 때는 지각하지 않도록 알맞은 때에 비스를 눈앞에서 세워주실 때 정도였습니다. 그게 놓고서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수면회를 기억하자! 수면회 때 주님을 실컷 만나고 오자!"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은혜로 저를 만나주셨던 예수님은 제게 또 거운 눈들이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왜일지, 왜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걸까? 왜 가 공이 잘못된 때를 없는 듯이 보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날마다 내 영혼이 은혜의 감금함을 느끼면서 어리석게도 성경이나 찬양을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주님은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셨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의 입에서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가사와 멜로디. 그 많은 찬양 중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형이 들 때 행복할 때도 자꾸만 제 입과 머릿속에는 이 찬양이 맴돌았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이 찬양을 부르다보면 정말 내가 즐겁고 평안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때때로 괴롭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종과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고등학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않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피로구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라며 천국에 올라가기까지 항상 예수님이 거느리신다고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고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나를 항상 거느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찬양을 제게 하라하시는데! 지금의 저는 수면회 때 만나주지 않았던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실은 그때 만나주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셨고 더 큰 만남을 하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는 옛날과는 아주 다르게 성경책을 고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심을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김지훈(고동부, 예보전양대)

한낮의 씨뿌림

봄이다. 온갖 꽃들이 저마다 꽃망울을 터뜨리며 자기의 모습을 뽐내고 있다. 볼수록 아름답고 귀하고 오묘한 색깔 속에 캔시리 마음이 흔들린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좋으셨다고.....

패청한 한낮 이웃의 영혼들을 향해

오늘도 종현의 전도 용사들이 봄 햇살을 받으며 결심을 재촉한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의 마음이다.

손에 든 전도지판을 보고도 냉담하게 편하하며

마치 이상한 사람 대하듯 거러하고 파하는 눈빛을 가진 영혼들 앞에 담대히 다가서 마음을 다하여 생명 줄을 던진다.

미꾸라지 비벼가듯 재빠르게 뛰는 영혼.....

아예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지 않는 영혼.....

주님은 우리에게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아직 낚시 솜씨가 서투르기만 하다.

주님은 다시금 말씀하신다.

복음의 신을 굳게 신고, 권리로 허리띠를 부착하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잡고 더욱 담대히 나가라 하신다.

볼꽃과 같은 화사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을 모처럼 만났다.

다침도 한다. 참으로 기쁘다.

지금 이 시간 만나게 하신 귀한 영혼들과 더불어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고 아름다운고 향기로운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인지

우리 삶으로 경험하여 영원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살아가리라!

김영선(집사, 15교구)

신임 교역자

예수님의 마음으로 안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진철 목사
(1971. 1. 3.)
박치원 사모



정민권 목사
(1973. 6. 16.)
최경윤 사모 외
1남 1녀

제2교육관 엘리베이터 완공

제2교육관 엘리베이터 공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안전한 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대략 한달 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불편했음에도 참아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훨씬 더 크고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38	정하균	2	청년1부	김화선(12)	864	윤정식	10	청년1부	한민교(24)	890	송재준	18	대학부	송광호(16)
839	김승환	7	청년1부	박병환(24)	865	박민재	8	청년2부	김영환(18)	891	이병철	17	청년3부	구창희(22)
840	유승현	19	종중1부	홍희준(1)	866	홍승현	8	청년2부	김영환(18)	892	김진현	19	청년1부	이민호(3)
841	고경민	19	종중1부	홍희준(1)	867	박진원	8	청년2부	김영환(18)	893	이규경	13	종중2부	한나영(1)
842	차상갑	4	청년1부	조상갑(11)	868	소 한	16	청년1부	이수자(16)	894	오승호	19	청년2부	박민재(14)
843	김선배	9	청년2부	김대현(7)	869	최 철	2	청년1부		895	박민철	12	대학부	최홍식(1)
844	이광열	5	종중1부	지석현(16)	870	이은실	16	청년1부	김병희(16)	896	노경민	8	종중2부	임병준(8)
845	박정호	7	청년2부	박정호(10)	871	소정민	11	청년1부	박대윤(8)	897	최하민	9	고동부	유은호(8)
846	박만길	16	청년3부	김영환(17)	872	김진영	12	청년1부	이재호(8)	898	고동부	9	청년2부	김미영(8)
847	김동호	16	청년3부	김영환(16)	873	유정	25	청년2부	김석영(7)	899	김광주	15	청년2부	김영희(6)
848	박민호	16	청년2부	조종환(16)	874	황	25	청년2부	김진희(7)	900	황재호	17	청년2부	구창희(22)
849	도미광	17	청년1부	이현수(11)	875	김지현	2	대학부	김정호(22)	901	유정호	22	청년1부	조국희(19)
850	남상현	15	청년2부	조종환(15)	876	최희호	18	대학부	최정호(10)	902	유정호	2	청년1부	
851	김지우	13	유년부	최종현(1)	877	현종근	5	청년3부	김정호(8)	903	정선호	21	소양부	
852	이현지	4	종중1부	김대현(4)	878	한대훈	1	청년2부		904	권태환	11	청년2부	이기진(10)
853	신석재	8	청년2부	박유선(10)	879	김지영	1	청년2부		905	손태현	23	대학부	김영준(20)
854	김순환	24	청년3부	김영환(20)	880	이은실	10	청년1부	윤영자(2)	906	김영환	8	소양부	남종호(8)
855	임대호	14	종중3부	이승준(10)	881	전승기	19	청년1부	한정희(2)	907	한성주	22	청년1부	
856	김현희	17	종중3부	김영환(17)	882	권진호	12	청년1부	이성복(8)	908	최희정	22	청년1부	
857	하영준	10	청년1부	전진학(7)	883	최희정	16	대학부	정성희(14)	909	이영환	1	청년1부	전경자(18)
858	이유은	21	종중부	전진학(21)	884	김진희	3	청년1부	한유희(3)	910	박재호	2	청년1부	송기영(8)
859	전재민	20	대학부	송승환(21)	885	이정엽	3	대학부	채은준(24)	911	최재훈	19	청년1부	이수원(19)
860	김진우	19	청년1부	김영환(18)	886	윤정주	7	청년3부	조은진(10)	912	노현희	16	청년1부	안병환(1)
861	임철수	22	청년1부	전진학(7)	887	유정호	17	고동부	정성희(14)	913	김진희	17	청년1부	임영애(1)
862	이계성	17	청년2부	박유선(10)	888	박유선	10	고동부	박유선(10)	914	신진호	10	고동부	서혜연(14)
863	최영환	18	청년2부	전진학(10)	889	전진현	11	청년2부	조국희(21)	915	김진희	18	대학부	안영희(18)

*: 종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5월 충현 기도의 창

박정호	이국진	안정진	장정호	김익찬
42점	52점	52점	52점	52점
장 훈	이희수	이희수	하종진	안지현
42점	52점	72점	52점	52점
윤수진	양해용	이성진	이계영	김준희
102점	202점	62점	12점	132점
황건심	황건심	유계천	강명구	전성진
102점	202점	47점	112점	82점
김희갑	김희갑	수원철	박정호	김현주
102점	202점	52점	52점	52점
최석준	최석준	박용현	강진철	이광현
222점	232점	242점	92점	162점
강종호	유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전철
212점	152점	172점		
황병민				

■ 여인도선

윤원식	김익선	홍순애	이옥주	김발주
152점	32점	52점	22점	162점
김정현	강병철	최보심	전은희	김경자
62점	202점	322점	102점	142점
김희희	이복순A	류진희	한상진	임태주
52점	52점	62점	102점	102점
강경미	옥지라	이복순B	전영희	이혜숙
222점	92점	112점	222점	62점
황준호	김정현	강옥주		
132점	242점	122점		

■ 전철지하차 시운전 김원섭

■ 전철지하차 김소연 ■ 전철지하차 장원희 노은영

전 스 시운전 김원섭